

지난주 설교요약

♣ 눅 1:57~66 ♣ 제목 :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1.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가랴 가문에 속한 이름이 아닌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태어날 아이가 가문에 속한 아이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께 속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장차 태어날 아이는 사가랴 너의 자식이 아니라 나의 자식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가랴'로 이름 짓지 않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이니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자기향복의 뜻이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후 자신을 숨기는 삶을 살아온 것과 사가랴가 병어리가 되는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 요한이라 이름을 지을 때

사가랴의 친척들과 이웃들은 세례 요한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갖고 사가랴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가랴가 아닌 요한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늘그막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인정해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6절 맨 끝에 보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짓지 않고 요한으로 이름을 짓게 됨으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자 그 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아이와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순모임 질문 (2월 19일 설교)

- 1) 이번주 설교 내용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하나를 말해보시고,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를 나누어주세요.
- 2) 미 5:2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해보세요.
- 3) 베들레헴, 마굿간, 구유, 강보에 담긴 의미들을 말해보세요.
- 4) 이번주 설교 내용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누어보세요.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예수그린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 예배 안내 \*새벽기도회(월-금) : 새벽 6:00 \*수요오전예배 : 수요일 오전 10:30  
\*금요기도회 : 금요일 저녁 8:00  
\*순예배 : 순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립니다.
2. 2023년 표어 - "씨를 뿌리고"
3. 순예배 - 점심식사 후 오후 1시에 순별로 모입니다.
4. 성찬식 - 3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문 - 8주차 배부합니다. 2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6. 대심방 - 2월은 대심방 기간입니다. 심방을 희망하는 가정은 순장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그린들 도서관 회원신청 - 회원 신청 서류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회원증을 발급해드립니다.
8. 예배 시정 안내 - 주일설교 및 새벽예배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예수그린교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밴드에서의 실시간 예배 중계는 중단하겠습니다.
9.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 바이올린, 첼로, 플룻 반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 모임 시간 : 토요일 오후 2시 30분(악기 무상 대여)
10. 3월/4월 매일성경 판매 - 가격 : 5천원

선교지 소식

장일규 선교사(필리핀)

1. 필리핀 30여개의 미전도종족들에게 들어갈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파송된 중국가정교회들과 좋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2. 파송교회와 선교단체가 연결되도록

... 예수 그린의 비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 온 세상에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 예수 그린의 사명

예수 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